새 책

▶생각하는 여자(줄리엔 반 룬 지음·박종주 옮김)=줄리아 크리스 떼바부터 로지 브라이도티까지. 동시대 여성 사상가들에게 사랑, 놀이, 일, 두려움, 경이, 우정이라는 여섯가지 주제를 질문한 줄리엔 반 룬의 철학 에세이다. 반 룬은 여성 사상가들을 직접 찾아가 인터뷰했고 출산과 육아, 성차별 등으로 여성이 겪는 일상 문제에 대한 고백을 담았다. 창비. 1만8000원.

▶어느 날 갑자기 가해자 엄마가 되었습니다(정승훈 지음)=학교폭력 가해자 부모가 쓴 이 책은 어느 날 갑자기 아이가 특수폭행 가해자가 되고, 아이와 함께 학교폭력위원회, 경찰서, 검찰청, 법원까지 거치며 겪은 경험과 그 이후 학교폭력 상담사로서 학교폭력 당사자와 그 부모들과 상담을 하면서 깨달은 내용을 담고 있다. 길벗. 1만6000원.

▶부모와 아이가 함께 자라는 오늘 육아(김영숙 지음)=편안하고 즐겁게 키우고 사교육도 하지 않았는데 두 아이 모두 아이비리그에 진학시킨 교육 전문가 20년, 엄마 경력 30년 김영숙 저자의 이야기다. 전작 '천천히 키워야 크게 자란다'를 통해 아이의 성장을 지켜봐야 한다고 강조했다면 이번에는 아이에게 자존감, 창의력, 좋은 습관을 길러주는 일상 교육의 모든 것을 담았다. 북하우스. 1만400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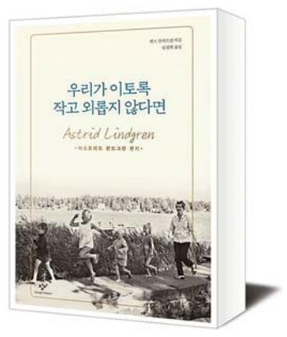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나태주 지음·윤문영 그림)=나태주의 시 쓰기 60년을 기념하는 이번 작품집은 '어른을 위한 동시'다. 사막처럼 메마른 삶의 오아시스처럼 젖어드는 동심의 시들을 나태주 시인이 직접 골라 엮었다. 숨어 있던 그의 동시들과 정년퇴임 후 교실 밖으로 나와 공주 풀꽃문학관 풍경을 마주하며 써내려간 신작 동시들로 꾸려졌다. 광고 디렉터인 윤문영 화백이 시에 그림을 입혔다. 톡. 1만3500원.

▶바다의 생물, 플라스틱(아나 페구, 이자베우 밍뇨스 마르칭스 지음·베르나르두 카르발류 그림·이나현 옮김)=아나 페구는 어릴 때부터 바닷가 근처에 살며 그 속의 생물을 관찰하는 것을 좋아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바다에 플라스틱이 넘쳐 났고, 그때부터 바다를 보호하기 위해 플라스틱을 수집했다. 이 책은 저자의 경험을 바탕으로 독자인 아이들이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를 탐구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살림어린이. 1만3000원.

▶녹색평론 5-6월호(녹색평론 편집부 지음)=이번 호에는 6·25와 우리 사회의 지난 70년을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으로 두루 돌아보는 '한국전쟁의 정신사' 특집을 마련했다. 또 코로나 비상사태가 기후변화로 대표되는 지구 생태계의 황폐화 그리고 인간성 및 인간관계가 망가지고 있는 현실과 동떨어진 문제가 아니라는 점에 주목하면서 문명적 차원의 '공생의 윤리'를 강조하고 있다. 녹색평론사. 1만2000원. 송은범기자

혼자 남아 슬피우는 여린 존재들을 위해

'삐삐'의 작가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전기



환경운동가·사회 활동가 아동문학 넘은 생애 조명

얼마 전 '구름빵' 작가가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으로 불리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을 수상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 상에 등장하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1907~2002)은 우리에게 잘 알려진 '말괄량이 삐삐'의 원작자다.

스웨덴 태생으로 20세기를 대표하는 동화작가인 그의 삶과 문학을 조명한 책이 있다. 덴마크의 전기작가 엔스 안데르센이 쓴 '우리가 이토록 작고 외롭지 않다면'이다. 린드그렌의 작가적 면모에 집중하면서도 그가 중요하게 여긴 모든 것들에 초점을 맞춘 전기다. '세계적 작가'라는 평면적 이미지를 넘어 린드그렌의 빛과 그림자를 입체적으로 살피면서 한 인간이 일생 동안 보여줄 수 있는 아름다움의 크기와 성취의 범위를 생각하게 만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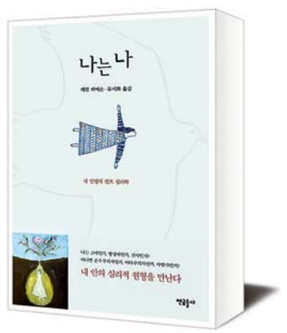
"어린이도 예술을 통해 충격을 경험해야 한다"며 아동문학의 금기를 과감히 깨트렸던 린드그렌의 일대기는 문학의 영역에만 머물지 않는다. 스웨덴 반핵 운동과 동물복지법 논쟁을 촉발시킨 환경운동가였고 아동 포르노그래피, 청년 주택문제 등에 목소리를 낸 활동가였다. 여성들이 격변의 20세기에 기존의 전통적 삶의 모델에서 벗어나 다양한 꿈을 쫓기 시작할 때 린드그렌은 보다 더 영민한 감각으로 시대의 진보를 읽으며 자신을 적극적으로 변화시켜 나갔다.

그의 씩씩하고 거침없어 보이는 행보 이면에는 어린 날 겪었던 고통이 자리잡고 있다. 린드그렌은 피임기구 광고마저 법으로 금지되었던 1920년대 스웨덴 농촌에서 혼외자를 임신한 여성으로 낙인 찍혔고 자신을 신체적·정신적으로 구속하고 통제하려는 폭력들을 마주하게 된다. 그의 험난한 여정에 힘이 되어 준 것은 유능하고 사려깊은 여성들이었다. 여성들과의 연대에 힘입어 성장한 린드그렌은 다른 약자들의 조력자이자 대변자로 살아간다.

부당함과 맞서 싸워야 할 때, 기꺼이 마음을 보태며 아픔을 나눌 각오가 되어 있는 린드그렌의 가치관은 그의 작품에도 고스란히 투영된다. 1970년대 혁명의 정신을 반영한 동화 '사자왕 형제의 모험'도 그중 하나다. 죽음을 정면으로 다룬다는 이유로 찬사와 비판을 동시에 받은 이 작품에 등장하는 주인공 스코르판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그 누구도 혼자 남아 슬피 울면서 두려움에 떨 필요가 없어." 지금 이곳에서 여전히 작고 소외된 존재들에게 전하는 메시지로 린드그렌의 생애를 함축하고 있다. 김경희 옮김. 창비. 2만5000원. 진선희기자

방향을 잃을 땐 여섯 가지 원형 떠올리라

심리학자 캐럴 피어슨의 '나는 나'



인간 마음의 심층을 탐구한 심리학자 칼 융. 오랜 정신분석 경험을 통해 개인의 행동, 사고, 신념, 감정 등에 몇 가지 공통된 유형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그것을 원형(archetype)으로 이름 붙였다. 융에 따르면 우리는 각자의 개인적인 무의식과 함께 모든 개인 안에 공통되게 존재하는 집단적 심리 원형을 가지고 있다.

융 학파의 심리학자 캐럴 피어슨이 융의 원형 심리학을 바탕으로 우리 내면에 자리잡은 여섯 가지 심리적 원형을 밝혀낸 책이 우리말로 번역되어 나왔다. '내 안의 영웅(The Hero Within)'을 원제로 달고 있는 '나는 나'이다. 여섯 가지 원형은 고아, 방랑자, 전사, 이타주의자, 순수주의자, 마법사로 이들이 우리 삶의 여행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보고 이야기를 풀어간다.

고아 원형은 세상에 홀로 남겨진 듯 외로움으로 가득한 심리적 추방자이다. 방랑자는 삶이 어딘가에 갇혀있는 것처럼 느끼고 이상적인 곳을 찾아 떠나는 유형이다. 전사는 자신의 존재를 증명하기 위해 싸우는 유형으로 성취하기 위해 자신을 몰아붙인다. 이타주의자는 자신보다 숭고한 무엇인가를 위해 희생하려는 자세를 지니고 있다. 순수주의자는 삶을 낙관하고 보다 큰 선에 대한 믿음을 보인다. 마법사는 자신의 미래를 마법처럼 변화시키려는 강한 의지를 품은 사람이다.

이들 유형은 한 사람의 내면에서 평생 동안 한 가지가 지배하기도 하지만 단계적으로 나타나 그 시기의 자아를 형성하고 사라진다. 때로는 다수의 원형이 동시에 활성화되어 자아의 여러 모습을 구성한다. 우리의 집단 무의식 안에는 이보다 더 많은 원형이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 여섯 가지 원형에 대한 인식만으로도 자아의 힘을 키울 수 있다. 길이 막히고 방향을 잃을 때면 당신 안의 고아 원형은 회복력을 주고, 전사는 용기를, 순수주의자는 삶에 대한 믿음을 일깨울 것이라고 했다. 류시화 옮김. 연금술사. 1만8000원. 진선희기자

이 책 김효선 시집 '어느 악기의 고백'

'이녁'이라는 환한 등으로 견디는 힘

신작 시집 '어느 악기의 고백'을 펴낸 김효선 시인.

기다려도 그 사람은 올 기미가 없다. '너무 오래 사랑한 죄'였을까. 김효선 시인의 신작 시집엔 그같은 슬픔의 나날을 넘기는 시적 화자가 등장하고 고통을 견디는 힘이 가까운 곳에 있음을 노래하고 있다.

시집 '어느 악기의 고백'은 '하논의 시간'처럼 멀게는 5만년 전까지 다다른다. 태곳적 생태계의 움직임은 멈추지 않고 오늘날까지 흔적을 남기는 법, 우리의 생애도 그렇듯 과거의 아픔이 오래도록 남아 현재를 흔든다. 제주에서 나오는 계간문예 '다층'에 산문 '시로 떠나는 제주풍경'을 연재하며 고향 구석구석을 누볐을 시인은 제주라는 공간에서 다시 살아보자고 한다.

'절벽에 핀 나리꽃은 얼마나 아찔한 목소리인지// 휘파람에 허밍이 얹혀 오는 아침/ 너무 오래 미워하면 너무 오래 사랑하게 된다/ 깨지기 쉬운 심장을 바다에 던져 버렸다'로 시작되는 '바다유리심장'으로 첫장이 열리는 시집엔 그리움의 정서가 밀려든다. '나는 언제나 먼저 가기다리는 쪽'('기연(機緣)')이라는 화자는 '어제 사랑한 얼굴이 도무지 기억나지 않아요'('우표를 붙이겠습니까')라고 읊는다. 하지만 '사랑만큼 지독한 방부제가 있을까'('미투리')에 이르면 그것이 곧 거짓이라는 게 드러난다.

사랑이라는 지독한 방부제 수만년 된 하논까지 이르며 상실감 넘어 '다시 살아보자'

동자복과 서자복, 먼물깍, 우도, 애월, 하논, 서귀포 등 시인은 섬이 품은 이야기에서 앞선 상실감을 씻어낼 '이녁'이라는 '환한 등'을 본다. '이녁'은 '당신'이란 어휘로는 미처 표현하지 못하는 감정을 지닌 제주 방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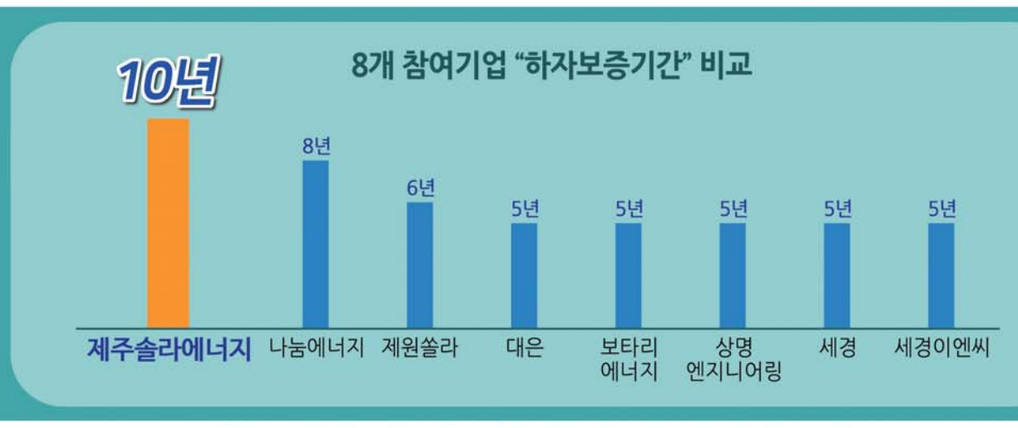
시인은 오래오래 뒤척일 때면 하루에 70만 번 들썩이고 뒤집어지는 애월 바다로 향해 더운 가슴 식히고, 죽어야 끝나는 관계를 떠올릴 때면 수만년 살아온 하논에 가서 스스럼없이 용서한다. 마침내 시인은 '다시, 서귀포'를 부른다. 서귀포는 '다시 돌아갈 사람이 있다는 위로만으로도// 가장 뜨겁게 오래 피는 마을'이라며 '다시 사는 생이 있다면 그런 생이 온다면/서귀포, 서귀포에 가서 살자'고 우릴 이끈다. 문학수첩. 8000원.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30년 쓰는 태양광, 10년 무상보증으로 안심 !!

보조금 받고 부담없이 설치하세요

제주에너지공사
2020 주택태양광 보급사업
신청접수 개시
(3kW 기준 : 보조금 251만4천원 / 자부담 249만원)



2019년 제주에너지공사 주택태양광 보급사업 고객선호도 1위, 시공실적 1위
도내 최장기간 무상보증을 제공하는 우수한 기술력의 전문기업과 함께 하십시오.

태양광은 제주솔라에너지 742-5775

제주솔라에너지 주식회사 태양광발전 전문기업 2019~2020 제주에너지공사 참여기업* 2020 한국에너지공단 참여기업* 제주시 노형로 356 벽상빌딩 2층 www.jejusolar.co.kr

*참여기업은 주관기관으로부터 기술인력, 시공실적, 회사신용도 등의 심사를 통해 매년 선정되며, 지원(보조)사업을 정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검증된 기업입니다.